

LS 에코에너지 (229640/KS)

관세이슈 지속, 그러나 성장스토리 유효

유틸/신재생. 나민식 / minsik@sks.co.kr / 3773-9503

Signal: 4Q25 컨센서스 부합

Key: 단기적인 관세 이슈에도 희토류 사업 진행중

Step: 신규사업에 주목해야 할 때

4Q25 Review: 컨센서스 부합

4Q25 매출액은 2,487 억원(YoY +6.7%), 영업이익은 131억원(YoY +67.9%)을 기록하며 이익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세부실적은 법인별 실적 차별화가 나타난 분기였다. ① (LS-VINA) 매출액 2,485 억원(YoY +7.4%), 영업이익 120 억원(YoY +30%, OPM 4.8%)를 기록했다. 초고압 케이블 유럽 수출이 지속되면서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② (LSCV) 매출액 682 억원(YoY +0.0%), 영업이익 25 억원(YoY 흑전, OPM 3.7%)를 기록했다. UTP 품목관세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3Q25 대비 -3.1%pt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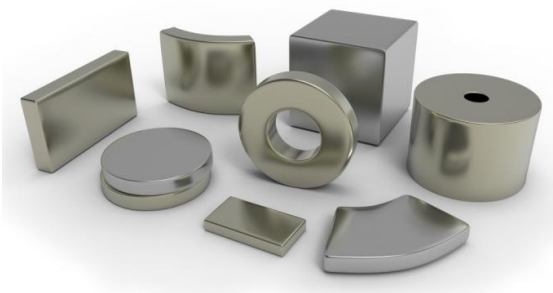
관세이슈로 난기류, 그러나 점진적 수익성 회복 전망

관세 이슈는 단기적으로 영업이익률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UTP 품목 관세 영향은 4Q25 에도 지속됐다. 회사는 관세 비용을 판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고객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단번에 반영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전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UTP 품목 관세율 45%가 적용되고 있으나, 단기 실적 저하 이후 점진적인 수익성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성장 동력인 희토류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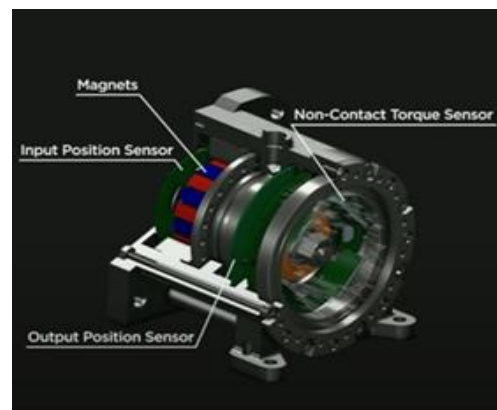
희토류 사업은 LS 에코에너지의 신규 성장 축으로 부각되고 있다. 회사는 베트남 내에서 희토류 금속 사업을 추진 중이며, 25년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26년 중 사업 구조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원재료는 호주 대형 광산업체로부터 공급 받고, LS 에코에너지가 희토류 금속제조를 담당하는 구조다. 이후 영구자석 생산은 LS 에코첨단소재 또는 LS 전선이 담당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매출액 규모는 아직 수량과 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매출 발생 시점은 26년 말에서 27년 초로 예상된다. 생산 설비는 베트남 LSCV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네오디뮴(NdFeB) 영구자석



자료: Google

Rotary Actuator (outer layer)



자료: Tesla

COMPLIANCE NOTICE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6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6년 02월 06일 기준)

매수

93.08%

중립

6.92%

매도

0.00%